

##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 인천소식

이원구 | 인천일보 기자

#### 인천오페라단 정기공연 <리골레토>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가 11월 6일부터 4일간 인천종합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를 풍성하게 수놓았다.

인천음악문화원과 인천오페라단이 제7회 정기공연으로 심혈을 쏟아 준비한 무대. <리골레토>는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의 희곡 <환락의 왕>을 오페라로 구성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주색을 밝히고 악행으로 이름난 국왕 프랑수아 1세의 난행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야기. 악독한 신하들과 왕의 독한 톱날에 상처를 입은 아름다운 처녀의 아버지 트리브레의 통탄과 반역을 줄거리로 한 것을 베르디가 대본으로 옮겨 오페라로 만들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무엇보다 극적인 음악. 건조무미한 레시타티브가 아닌 일관된 오케스트라로 노래를

계속하며, 특히 제3막의 극적인 효과는 백미이다.

인천지역 중견 작곡가 김중석 단국대 교수가 오케스트라 지휘봉을 잡았으며 황건식 인천오페라단장이 공작으로 무대에 나섰다.

#### 인천미술초대추천작가전 성료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와 중견 미술작가들의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시 미술초대추천작가전이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수봉공원 인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문인화, 서예 등에서 초대작가 94명과 추천작가 31명 등 모두 125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인천미술초대추천작가전은 지난 1981년 첫 전시를 시작해 올해로 22 회째를 거처오는 동안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의 원로와 중견 미술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신인 작가들에게도 미술적 역량을 넓혀가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하루가 다르

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작가적 노력과 각 장르별 미술작품의 경향을 조심스럽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주위의 평. 특히 42명의 초대작가와 19명의 추천작가가 참여하는 서예부문에서는 가장 많은 작가들이 나선 만큼 예서와 전서뿐 아니라 행서와 초서까지 다채로운 서체와 힘있는 필력을 지닌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 인천시향 '인천음악인의 밤'

인천시향이 11월 13일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천음악인의 밤'을 겸한 249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동해의 여명> 서곡과 김신애의 첼로 독주, 최윤정의 피아노 독주, 김상혜의 소프라노 독창 등 다채로운 장르가 총출동한 무대였다.

<그리운 금강산> 작곡자 최영섭씨의 <동해의 여명>으로 고요한 동해, 아침해가 해면으로 솟아오를 때의 엄숙함으로 시작된 연주회는 생

상의 〈첼로 협주곡 제1번 가단조 작품 33〉과 소프라노 김상혜의 푸치니의 〈무제타 왈츠〉와 구노의 〈줄리엣 왈츠〉 등으로 진행됐다.

### 가곡과 아리아의 밤 신영옥 초청공연

신영옥이 인천 새얼문화재단의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인천무대에 섰다. 11월 21일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가슴속에 묻어둔 그리움의 멜로디를 끄집어냈다.

이날 〈카바티나〉 〈얼굴〉 〈작은 별〉 〈번민스런 황홀〉 〈달빛〉 〈사랑의 노래〉 〈투우사의 노래〉 〈애리 로리〉를 신비로울 정도의 섬세한 음색으로 관객에게 선사했다.

2부에선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별〉 〈무지개 저 너머〉 〈가고파〉 〈관현악 조곡 제3번 작품번호 1068 중 에어〉 〈용기를 내세요, 아버지〉 〈비앙카와 페르난도〉를 종달새 같은 맑은 음색으로 노래했다.

이번 연주회의 주목할 점은 선곡과 편곡, 연주가 모두 외국 것이면서도 한국적 정서가 배어 있는 '한국적 크로스오버'란 점. 그는 자신이 좋아하고 목소리에 맞는 곡만을 선별했으며, 한치의 실수 없는 완벽한 무대를 위해 박영민, 이정식, 한충완, 박종훈, 김민석, 크리스바가, 김창현 등 오랜 무대친구들과 호흡을 맞췄다.

이번 콘서트는 11월 한 달간 전국

11개 도시를 순회하는 투어 일정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 신세계갤러리 개관 6주년 기념전

인천신세계갤러리가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점 6주년 기념 〈팝아트〉전을 마련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서구 미술계를 대표하는 팝아트 작가인 탐 웨슬만(Tom Wesselmann),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앤디 워홀(Andy Warhol),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 자스퍼 존스(Jasper Johns), 짐 다인(Jim Dine) 등 6인의 판화와 유화, 그리고 오브제 작품 29점 등이 선보였다.

팝아트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확산되어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인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미술로 수용한 미술 사조 중 하나다. 광고 또는 대중매체에 흔히 등장하는 기존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그것을 기호 혹은 기호체계로 사용하여 상업적 대중문화의 다양한 측면들로 담아내고 있다.

특히 영화와 소설 등 다방면에서 활약한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 1967년 작 〈마릴린 먼로〉 10점과 작품 〈리즈〉 등의 작품을 선보이는 앤디 워홀은 만화나 신문, 영화 브로마이드 등 매스미디어의 매체를 실크스크린으로 캔버스에 전사 확대하는 수법으로 현대의 대량소비문화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또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미국의

대중만화를 주제로 인쇄의 망점까지 그려넣어 이미지를 확대하며 매스미디어의 방법을 이용한 작가로 〈거실〉 〈서재〉 등 6점이 전시됐다.

이 밖에도 콜라주나 그림과 비중이 똑같은 오브제 등을 혼합 소재로 활용하는 탐 웨슬만을 비롯해 국기 표적, 알파벳, 숫자 등 신변의 제재를 채택, 사물과 회화 이미지로 융합시켜 온 자스퍼 존스의 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 의정부 연극계 〈하녀들〉 공연

의정부에 소재한 극단 무연시와 한국연극협회 의정부지부가 공동으로 장 주네 원작의 〈하녀들(Les Bonnes)〉을 제작해 11월 13~21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공연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그늘을 적나라하지만 아름답게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장 주네(1910~1986)의 작품은 난해성 때문에 그 동안 지방 극단에서는 별로 공연하지 않았다.

이번 작품은 지역연극계가 힘을 모아 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제작비도 3,700만원이 투입됐고, 공연기간도 장장 9일로 의정부예술의전당 개관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

왔다.

〈하녀들〉은 마담이 외출한 빈집에서 하녀 둘이 신분상승의 은밀한 욕망이 꿈틀대는 연극놀이를 하다가 주인을 살해하려는 음모로 옮겨지고 결국은 죽음으로써 욕망을 탈출한다는 내용이다. 극단 무연시 측은 작품 선정에 대해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난개발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빈부격차와 갈등, 이질성을 이 작품을 통해 상징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다”고 밝혔다.

각색·연출에 김도후, 음악 나유성, 미술 박민정이며, 최병화, 신신내, 최창석이 출연했다.

#### 경기도립무용단 〈삼별초의 혼길〉

경기도립무용단(예술감독 조홍동)이 창단 10주년 기념 ‘우리 춤의 맥’ 두번째 시리즈이자 제21회 정기 공연 작품인 〈삼별초의 혼길〉을 11월 21~22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올렸다.

이번 공연은 삼별초의 격전지를 따라가며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한 고려무사의 원혼을 달래주는 줄거리로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특히 씻김굿과 강강술래, 무당춤, 신대(제주도의 무속춤), 해녀춤 등 도서(島嶼)지방의 민속·무속을 공연장의 특성에 맞게 춤으로 창작해 관심을 끌었다.

조홍동 안무, 홍원기 원작, 김효경 연출 작으로 남성 춤을 장기로 한 무용단답게 목검(木劍)을 든 여성군무

와 철검(鐵劍)을 든 남성군무가 대결하듯 어우러지는 ‘수련무’ 장면의 박진감은 압권이었다. 영상과 시를 결합인데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삼별초를 소재로 하고 있어 편안하게 극을 흐름을 따라가며 한국 춤의 다양한 맛을 느끼게 했다. 무용단은 이번 작품을 위해 복을 새로 디자인해 사용하고 용선과 배방선을 제작하는 등 보다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 이영미술관, 전혁림의 〈여든여덟〉전



▲ 전혁림 화백이 나무재반 위에 그린 그림

전혁림(88) 화백의 미수를 기념하는 〈여든여덟〉전이 ‘그림과 목기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이영미술관(관장 김이환)에서 열고 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2002 올해의 작가’였던 전 화백은 이번 전시회에서 사라져 가는 생활 목기 위에 예의 한국적 색과 문양을 넣은 작품 80여 점과 1~4호 유화 소품 30여 점 등 11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한국적 색면 추상의 대가’로 불

리는 전 화백은 통영에서 태어나 일평생 통영에서 작업하고 있으나 이영미술관 김 관장과의 오랜 인연 때문에 미수전을 용인에서 열게 됐다. 목기 작품은 사라져 가는 우리 목기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 관심을 모았고, 소품전은 대작 위주의 작품세계를 작은 틀 안에서 보다 밀도 있게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모았다.

### 강원소식

남궁현 | 강원일보 기자

#### 목제 이판석 개인전

늦가을 정취를 더하는 요즘 수묵담채화의 멋에 빠질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동양화가 목제 이판석(墨齊 李判石) 개인전이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춘천미술관에서 열려 호응을 얻었다.

목제 선생은 1957년 대한민국 6회 국전에서 동양화로는 유일하게 입선, 두각을 나타낸 화가. 1981년과 1984년 동양화 개인전을 열어 작가의 세계를 과시해 온 그가 강원일보 창간 58주년 기념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를 섬세한 필치로 표현한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목제 선생의 국전 첫 입선 작품인 〈우후(雨後)〉를 비롯 지난 35년간 설악산을 오르내리며 사계절의

변화를 담은 <설악운해> <오련폭포>, 중국에서 그린 <황산> 등이 눈길을 끌었다.

목제 선생은 1942년 벽천 나상목 선생에게 사사받았으며 6·25전쟁 당시인 1950년 전쟁을 피해 전주를 찾은 도출신 화가 목로 이용우 선생에게 그림을 배우는 등 정통 동양화만을 고집해 왔다.

그림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중국으로 유학을 가 대만의 부경부 선생에게 3년간 수학하는 등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기도 했다.

목제 이판석 선생은 “같이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은 모두 손이 떨려 붓을 놓아 즐겨 피던 담배와 술을 줄였다”면서 “70이 넘어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강을 가진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다.

#### 춤으로 푸는 강원도의 흥천

춤으로 푸는 강원 흥천편 ‘흥천 삼현리 물통방아놀이’가 11월 14일 오후 7시 흥천문화회관에서 공연됐다.

유옥재창작무용단이 주최한 이번 공연은 유옥재(강원대 무용학과 교수) 연출 및 안무로 수석단원, 정단원, 연수단원, 강원대 무용학과 학생 등 30여 명의 단원이 한국의 몸짓을 선사했다.

흥천 삼현리 물통방아놀이는 입산과 나무 베기, 운목, 물통방아 제작, 물대기 방아질기 등 모두 4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흥천 출신 소설가 전상국(강원대 국문과 교수)의 소설 <아베의 가족>을 춤으로 풀어낸 한국무용 <아베>도 선보였다.

4장으로 구성된 <아베>는 한스려운 운명을 타고난 여인 아베의 어머니가 애절함과 기구함을 뒤로한 채 백치의 아베를 낳아 겪는 가족애를 그리고 있다.

#### 극단 노틀 이태리 초청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오프 진출로 연극계의 주목받아 온 극단 노틀이 이탈리아 토리노 무대에 오른다.

극단 노틀(대표 원영오)은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의 토리노 유럽연극센터에 초청돼 <동방의 햄릿>을 공연한다.

이번 이탈리아 공연기간 동안 극단 노틀이 직접 주최하는 공개 워크숍이 열려 우리나라와 노틀의 연극양식에 대해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된다.

극단 노틀의 <동방의 햄릿>은 지난 1999년 일본 토가 페스티벌, 2001·2002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오프, 2002년 베세토 연극제 등에 초청돼 세계 연극계의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노틀의 대표작이다.

원영오 대표는 “이번 공연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만남으로 전통을 통한 신비주의 연극이 아닌 보편성을 토대로 정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93년 창단된 후 원주 후용1리 후용예술센터에서 활동하는 극단 노틀은 내년 호주 에든버러 페스티벌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 도예총-중국 안휘성 문화교류협정 체결

강원도 예총과 중국 안휘성 예술단은 오는 12월 문화예술교류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도예총(회장 배동욱)은 최근 중국 안휘성 서화예술단과 양자간 문화예술 교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음달 중 중국 안휘성 빼다시에서 교류협정을 맺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국 북부3성인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과 교류를 해왔으나 중국 본류의 문화를 간직한 남서부 지역의 안휘성과의 문화예술 교류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중국 안휘성 예술단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강릉여성회관에서 <강원도·안휘성 미술교류 전시회>를 열어 안휘성의 서화작가들이 한·중 문화예술 교류의 첫발을 내딛는 기회를 가졌다.

중국 안휘성 예술단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춘천, 강릉, 속초 지역에서 무용, 미술, 음악, 사진 등 강원도의 문화예술인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도예총은 지난 2001년 안휘성화교등예술단 공연을 비롯 지난해 도예

술단의 중국 방문, 안휘성의 한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 교류협정 후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종만 사진전**

〈이종만 초대전 섭리 5(썸-REST)〉가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강릉문화예술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년 동안 섭리를 테마로 사진작업을 해온 작가의 완숙미를 느끼게 하는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다.

눈 쌓인 강원도의 비탈, 뾰뾰이 박혀 있는 나무들의 이미지 속에 인간 내면의 고독을 만나기도 하고 편안함을 발견하기도 한다.

“대상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성을 유도했다”는 작가의 말 속에 이번 전시회의 주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강릉 출신으로 강원도사진문화상, 강원사진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현대사진의 조망전〉 〈한국현대사진의 흐름전〉 〈사진가 8인의 시각전〉 등 유명전에 참여했다.

충청소식

이현숙 | 충청일보 기자

**『제1회 소극장연극제』**

충북연극협회(회장 이윤혁)가 10

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1회 소극장연극제』를 펼쳤다. 올해 처음 마련된 소극장연극제에는 청주에서 활동하는 4개 극단이 요일별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청년극장이 〈두 남자 스토리〉(슬라보미르 므로체크 작), 상당극회가 〈늙은 창녀의 노래〉(송기원 작), 청사극단이 〈돼지와 오토바이〉(이만희 작), 시민극장이 〈첼로와 케첩〉(김명화 작)을 각각 선보였다.

청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공연된 이번 소극장연극제는 침체된 연극환경을 개선하고 정기공연 외에 연극의 틈새시장을 꿰뚫어보자는 데 의욕을 보였다.

공연작품들은 부조리극, 모노 드라마, 풍자극 등 개성과 다양성을 보여주었으며 내용 면에서도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청년극장의 〈두 남자 스토리〉는 두 남자의 눈을 통해 사회의 허구성을 통렬히 공박하는 연극. 지성인에 대한 환멸을 극명하게 대변하며 사회 속의 역기능을 뼈아프게 그렸다.

상당극회의 〈늙은 창녀의 노래〉는 사창가에 빠져들어 20여 년을 살아온 어느 윤락여성의 독백을 담은 연극. 청사극단의 〈돼지와 오토바이〉는 아내와 사별한 남자와 과거의 여자였던 연하 여자와의 재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그린 연극이다.

시민극장의 〈첼로와 케첩〉은 한 남녀의 회상을 통해 희미해져 버린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연극. 사랑의 기억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사랑이 왜 소중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 작품이다.

**『제21회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

『제21회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에서 대상은 현대무용 단체 부문에 중앙대(이경준 외 11명)의 〈렌즈〉가 차지했다.

충북무용협회 주최로 10월 23일과 24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올 대학무용경연대회에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부문에 걸쳐 전국에서 50여 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심사위원장인 김복희(한양대 교수) 씨는 “올 경연대회는 남성 무용수들이 강세를 이룬 가운데 다양한 춤 언어를 폭넓게 보여준 무대였다”며 “춤 정신과 기법을 지키면서 독특함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일부 작품에서는 감정 표현이 부족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대상을 받은 〈렌즈〉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사회 현상을 춤사위로 표현한 작품. 사회의 그릇되고 비뚤어진 세태를 강렬한 몸짓언어로 담아낸 군무다.

소재의 선택과 구성, 기량 면에서 빠짐없는 안정감을 보였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 음악과 춤의 변화를 통해 단순하고 깔끔한 몸짓들을 만들어냈다.

**윤덕경 교수 20주년 기념 출판 선보여**

서원대 윤덕경 교수가 창작활동 20년을 기념해 10월 15일 괴산체육센터에서 춤 공연을 가졌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은 2003 무대 공연 지원 선정 작품인 <아~엄마 우스셨다>를 무대에 올렸다.

이 작품은 지난 1997년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어머니의 애환을 한국 창작춤으로 안무했다.

올해로 8년째 서울, 청주를 중심으로 20여 곳을 순회공연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작품은 국내 공연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아~엄마 우스셨다>는 장애인의 아픔을 표현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환기시키고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 것이 작품의 의도. 선천적으로 정신지체로 태어난 자식의 안타까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대한 끝없는 마음을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창조적인 안무로 강렬한 힘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출했다.



**『경남예술한마당 큰잔치』**

경남예총(회장 이영환)이 마련하는 『경남예술한마당 큰잔치』가 10월

22일 오후 6시 30분 거창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의 첫머리는 풍물패 곱메패가 출연하여 '거창의 땅을 두드리며' 라는 제목으로 판굿을 벌여 신명을 돋우고, 경남국악단과 지역가수 송장섭 씨가 공연을 펼쳤다.

2부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는 문예중흥 선언문 낭독과 감사패 전달에 이어 올해 경남예술인상 수상자인 김삼경(65·전 도사진작가협회 회장) 씨를 비롯해 공로상에 선정된 김주상(전 경남무용협회 부지부장), 김해음악협회, 현대영(창원예술극단 상임연출) 씨가 상을 받았다.

3부 '가을 야외 음악회'에서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선사했는데, 경남팜오케스트라의 오프닝 서곡과 소프라노 김효진 씨, 베이스 장재석 씨의 솔로연주, 레드채플린 춤서리의 힙합 공연, 국악과 재즈의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2003 창원무용제』**

『2003 창원무용제』가 10월 26일 오후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구지봉의 봄노래' 라는 주제로 열렸다.

창원무용협회장인 박성희 씨가 안무를 맡고 창원 무용의 집 설승아 씨가 대본과 구성을 맡은 이번 작품은 창작무용으로 8장까지 구성돼 있다.

이번 작품의 배경은 가락국 시조 탄생의 성지인 구지봉을 배경으로

찬란했던 옛 가락국의 문화를 상기하면서 고유한 그 문화정신을 계승하고 이어 나가자는 의도에서 구성된 것으로 전통무용의 묘미를 느낄 만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시조의 신비한 탄생 배경에 깔려 있는 자손 번성과 풍요를 기원하는 불꽃같은 가야인들의 열망이 거북이라는 생명의 상징물로 표현되며, 대자연이라는 의미의 여성을 통하여 기원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노산 이은상 탄신 100주년 기념제전**

마산 출신 시조시인 노산 이은상 탄신 100주년 기념제전이 경남 시조시인협회 주관으로 10월 25~26일까지 마산 창신대학, 합포초등학교에서 열렸다.

25일 오후 4시부터 창신대학 제2캠퍼스 세미나실에서 개막식을 가지고 이어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에서는 김학성 성균관대 교수가 <현대시조의 진단과 전망>, 송희복 진주교대 교수가 <이은상의 무상과 불교적 인생관>, 김복근 시조시인이 <노산 선생의 옥중시조 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경남시조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서일옥 시인이 수상을 했으며, 이튿날인 26일 10시부터 합포초등학교에서 백일장이 있었다.

**『제8회 김달진 문학제』**

11월 8~9일까지 『제8회 김달진

문학제』가 진해시민회관 및 진해시 일원에서 열렸다.

인간에게 고유한 정신과 열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는 정신주의를 추구한 진해 출신 월하 김달진 시인의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해 경남시 사랑문화인협의회가 주관하고 김달진 문학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시낭송, 문학 심포지엄, 백일장, 김달진 생가 방문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해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이어 '전국 시인들의 시낭송과 영상과 음악과 무용과 몸짓의 만남'이란 주제로 노향림, 박정대, 박주택, 손종호, 신달자, 신덕룡, 윤석산, 임병호, 허영자, 원은희, 최재섭, 하영, 이서린, 이용인 시인 등이 시낭송을 한 것을 비롯해 김달진 시인의 시〈시극 발표〉와 시와 음악과 무용과 멀티 영상의 만남 등 색다른 무대를 연출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진해 해군회관에서 제14회 김달진 문학상 수상자인 시 부문 박정대 시인, 문학평론 부문 이해원 씨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 민예총 진주지부 창립

11월 8일 오후 7시 진주산업대학교 공연장에서 민예총 진주지부 창립대회를 가지고, 강동욱(41·진주오광대 보존회) 씨를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진주 민예총의 조직은 지역 현실

에 맞게 전통연희, 문학, 연극, 음악, 사진 영상의 5개 장르위원회와 정책, 청소년 문화, 노동 문화의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주 민예총은 지역 문화정책의 무정향성, 문화행정을 관이 독점하는 후진적 관행, 지역의 낮은 소수 독점 문화체계 등을 개선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 『대구오페라축제』 성황리에 열려

‘오페라 도시-대구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획된 『대구오페라축제』가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구오페라축제』는 내년부터 개최될 예정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프레’ 행사 성격을 띤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대구오페라축제』에는 국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영남오페라단 〈나비부인〉, 대구시립오페라단 〈토스카〉, 서울시 오페라단 〈심청〉 등 4개 작품이 공연됐다.

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조해녕 대구시장)는 초청장을 일체 발부하지 않은 채 총 1만 2,384장의 입장권을 발매했는데 이 중 1만 1,838장이 팔려 95.6%라는 놀라운 객석 점유율

을 기록했다. 또한 총 9회의 공연 가운데 5회가 매진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한편 축제조직위는 『2004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내년 8월 또는 10월에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2004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는 대구지역 2개, 서울지역 2개, 해외 1개 등 국내외의 5개 오페라단의 작품이 초청돼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보조 행사로 경축음악회와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열고 외국 유명 오페라단에서 활동 중인 주역 가수 3명도 초청할 방침이라고 조직위 측은 밝혔다.

#### 천재화가 이인성을 기리는 문화행사

한국 근대화단에 혜성처럼 나타나 1930년대 명성을 떨치다 1950년 총기오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천재화가 이인성(1912~1950)을 기리는 각종 문화행사가 11월 대구에서 열렸다. 이인성 기념사업은 문화관광부가 2003년 11월 ‘이달의 문화인물’로 이인성을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제4회 대구시 이인성 미술상 시상식이 11월 4일 대구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올해 이인성 미술상은 이영룡 계명대 교수가 받았다.

지나해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한 이강소 화백의 초대전이 11월 4일부터 30일까지 대구지역 4개 주요 화랑에서 일제히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 화백의 신작 회화를 비롯해 조각, 세라믹 페인팅, 1970년대 설

치작, 영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대구시립극단은 이인성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 초연극 <노을 앞에서>를 11월 3일 대구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렸다. 대구시립극단은 '이미지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이인성의 삶을 조명했다. 대사에 의존하는 기존의 극 형식을 탈피해 무대를 커다란 화폭으로 삼고 배우의 몸짓, 소리, 음악, 빛 등 각종 오브제들을 관객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험정신을 보였다.

#### 황병기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창작국악의 지평을 연 가야금 명인 황병기가 10월 7일 오후 7시 30분 아트홀하모니아에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가졌다. 황병기의 음악을 대구에서 그것도 17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 황병기는 두 시간여 동안 대구의 음악애호가들과 즐거운 '음악대화'를 나눴다.

황병기의 대구 공연은 지난 1996년 대구문예회관 공연 이후 이번이 두번째이다. 이날 그는 자신의 대표적인 창작곡이자 걸작인 <숲> <침향무> <비단길>을 연주했다. 생활 주변의 정서를 표현한 초창기 음악(숲)에서부터 신라인들의 예술혼(침향무), 무한 순환이라는 동양적 사유(비단길) 등을 담은 이 곡들의 작곡 동기와 연주 기법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곁들였다. 청중들은 노예술

가가 들려주는 가야금 연주와 음악 이야기, 인생철학 등을 숨죽여 경청했고 그의 유머 넘친 화법에 박장대소했다. 감동의 크기는 무대의 크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케 한 자리였다.

## 부산소식

박희봉 | 국제신문 기자

#### 생명살리기 문화운동

가을이 저물어가는 11월, 부산문화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

16일 금정산에서는 '생명의 숲대' 365개를 심는 행사가 열렸다. 365의 숫자는 「동의보감」에 명시된 인체의 혈점으로 생명을 상징한다. 숲대에 사용된 나무는 태풍 '매미'로 쓰러진 폐목이나 고사목을 베어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 숲대 1개당 5~6명씩 짊어지고 금정산성을 오르는 장관을 연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와는 궤를 달리한다. 김지하 시인 등 전국의 생명운동가와 부산·경남의 문화계 대표인사 500여 명이 모여 새 문화의 창출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지하 시인, 수경 스님 등 생명운동가들은 15일 범어사에 모여 '생명운동의 테제'를 마련, 앞으로의 운동 방향을 제시키로 했다. 이들은 천일기도를 마친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

이날 발족한 '지리산 생명살리기 평화결사' 등 모든 생명운동체와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정산에서 출발한 생명살리기 문화운동은 부산·경남에 그치지 않는다. 10월 31일 발족한 '금정산·천성산을 지키는 문화연대'는 발표문을 통해 "앞으로 전국의 문화·환경·시민·사회단체와 지역민들의 연대를 통해 생명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이번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생명살림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오는 23일부터 금정산·천성산에 대한 답사활동이 계획돼 있다. 이곳의 생명 현장을 직접 문화인들의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산지늪과 습지에 대한 탐사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연말에는 '금정산 살리기 생명 콘서트'를 잇따라 연다. 생명가치를 옹호하고 생활의식을 고취하는 강연이나 집회, 전시,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문화·환경·시민·사회단체, 지역민들과 연대해 전북 부안군 위도의 핵폐기장 계획,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 사퍼터널 공사 등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대운동에 나선다. 앞으로 이 지역 개인이나 단체들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쳐나가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청산 씨는 “문화연대는 과격한 시위를 지양하고 연극·그림·음악·시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의 분열적이고 분파적인 운동을 배척하고 통합적인 문화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보와 보수, 남과 북, 동과 서, 근본과 방편 등 모든 차별적인 편견을 걷어내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 25년 전통 부산관현악단 활동 중단

25년 전통의 민간 오케스트라 부산관현악단의 선율이 멈춰 섰다.

부산지역 교향악단의 산 역사이며 자존심으로 간주돼 온 부산관현악단은 자금 조달과 기획, 운영까지 도맡아왔던 지휘자 유호석 씨가 사퇴키로 함에 따라 활동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유씨의 사퇴는 계속된 경제난으로 기업들의 지원이 줄어들어 무대 지원금, 문예진흥기금으로는 단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 주요인이었다.

부산관현악단은 그 동안 부족한 경비를 메우기 위해 일부 단원들의 사비까지 털어 운영해 왔다. 게다가 연주회를 하고 난 뒤 단원들의 연주비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해체 상태에 놓인 것이다.

이 같은 열악한 재정 상황은 대부

분의 오케스트라가 겪고 있다. 부산 지역에는 현재 20개 가량의 오케스트라가 있지만 연간 4~5회 이상의 연주회를 열고 있는 단체는 5개 가량에 그친다. 나머지 10여 개 단체는 활동을 멈추고 ‘겨울잠’에 들어갔거나 연간 1~2회의 연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지역 음악인들은 민간의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만큼 정부나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부산 연극계 뮤지컬 붐

부산 연극계에서는 요즘 뮤지컬 붐이 일고 있다.

감각적인 쇼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코드와 맞물려 공연된 뮤지컬마다 성황을 이루면서 연극단체들이 뮤지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월 극단 예저포의 <시스터 액트>, 지난 7월 부산레파토리시스템의 환경 뮤지컬 <노인, 새 되어 날다>가 공연돼 뮤지컬 무대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 11월 말에는 부산시립극단이 창작 뮤지컬 <영원지애>를, 연희단거리패가 <쌍생>을 공연한다. <영원지애>는 출연인원만 60여 명으로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이며 <쌍생>은 쌍둥이 오누이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소극장 뮤지컬이다.

연희단거리패는 이에 앞서 11월 15일 밀양연극촌 주말극장에서 노

래, 춤, 미술, 마임, 만담, 연주가 어우러진 버라이어티 쇼를 공연했다.

이 밖에 뮤지컬 <하늘을 나는 피터팬> <어린왕자>, 인형 뮤지컬 <빨간 혹부리 할아버지> <플란다스의 개>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극 공연이 줄을 이었다.

### 대형 춤무대 잇따라 열려

엄옥자·이윤자(부산대), 최은희(경성대) 교수가 각기 무대를 꾸몄다.

‘무용계의 큰엄마’로 불리는 엄 교수는 11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무용극 <칼의 노래를 넘어서>를 공연했다. 이순(耳順) 기념공연인 이번 무대는 9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100여 명의 춤꾼이 동원된 70분간 진행된 대형극이었다. 중견 소설가 김정자 교수가 극본을, 채희완 교수가 연출, 황의중 교수가 무대음악을 맡아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이순신의 삶을 아내의 시각에서 풀어낸 이 공연의 안무자는 엄 교수의 딸인 변지연 씨였다.

10월 24일 열린 이윤자 교수의 공연은 ‘10년 기획 춤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 교수는 3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새로운 한국 춤의 장르를 개척하려는 모험을 감행할 계획이다.

최은희 교수는 작가 김주영 씨의 장편소설 「천둥소리」를 춤으로 형상화해 3년 만의 개인 창작춤을 벌

였다.



『2003 광주공연예술축제』 성료

『2003 광주공연예술축제』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궁동예술극장과 연바람, 문예정터 등 광주지역 소극장에서 열렸다.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연극 행사인 이번 축제에는 극단 청춘(타인의 눈), 푸른연극마을(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열 아리(아무도 없다), 진달레 피네(분장실), 여우회(달님은 이쁘기도 하셔라) 등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단 5개 팀과 서울의 골목길(삼총사), 인천의 산만(매직타임), 부산의 예저또(시스터 액트) 등 외지 단체 6개 팀을 포함, 모두 11개 팀이 참가했다.

‘꿈이 있는 자유’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의 참가자들은 무거운 주제보다는 연극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 초보 연극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관객 모니터단이 뽑은 작품상은 여우회의 <달님은 이쁘기도 하셔라>가 차지했다.

광주·전남 문화수도 건설 시민 포럼

광주문화수도 건설 시민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주·전남 문화수도 건설 시민 세계 포럼이 11월 12일 광주은행 회의실에서 열렸다.

유네스코의 특별후원을 받아 ‘광주 문화수도 구축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모두 2부로 진행됐다.

1부 ‘국제적 문화 메카 인프라 구축 방향’에서는 허사노리 이소무라(파리 주재 일본 문화원장), 오그리엔 바빅크(유럽도시예술 재단사), 장석원(전남대 교수) 등이 ‘공간 원형과 도시 건물의 인간화’ 등을 테마로 주제 발표를 했으며 김찬동(문예진흥원 수석 큐레이터) 등이 토론에 나섰다.

또 ‘광주·전남 문화 프로젝트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2부에서는 다니엘 아바디(파리 국립현대미술관장), 케빈 파우어(스페인 레인소피아왕립박물관 부관장) 등이 ‘예술과 도시’ 등을 테마로 주제 발표를 했다.

『제11회 임방울 국악제』 개최

국창 임방울 기념 광주국악진흥문화재단이 주관한 『제11회 임방울 국악제』가 10월 2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9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등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6회 대회를 치른 ‘임방울 국악제’와 10회 대회를 치른 ‘광주국악대전’이 통합된 후 처음 열린 행사.

올 초 문화관광부가 경연대회 난

립으로 인한 수준 저하 등을 이유로 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축소하면서 대통령상을 박탈당했던 두 대회는 통합 단체를 출범시킨 후 대통령상을 다시 확보, 이번 대회를 치르게 됐다.

재단 측은 이번 대회의 심사 및 경연 방법을 대폭 개선,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예년에는 부문별로 심사위원 5명을 선정했던 데 반해 심사위원을 7명으로 확대하고 예선·본선 심사위원을 이원화했다. 또 채점표에 경연자 성명 기재를 없애고 경연 시작 10분 전 경연 순서를 추첨, 경연자 성명 호명 없이 바로 경연에 들어가도록 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판소리 명창부에 출전한 소주호(38) 씨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판소리·기악·무용·시조·농악 등 5개 분야에 모두 120여 명이 출전, 50명이 입상했다.

새롭게 출범한 재단은 앞으로 『임방울 국악제』의 위상 정립을 위해 학술 세미나 개최, 국악제 발전방안 용역 실시, 후원회 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수상자들에게 대해 시립국극단 위촉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야제, 민속놀이 체험장, 남사당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들이 함께 하는 ‘국악축제’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

광주시 남구 지역민들의 문화·정

보 센터 역할을 할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이 11월 21일 개관 기념 행사를 갖고 문을 열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 택지개발지구 내 자리한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지하 3층, 지하 7층 규모로 문예회관과 문화정보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예회관은 424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실로 구성돼 있으며, 최첨단 정보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문화정보 도서관(열람석 320석, 디지털 자료실 51석)은 문학·사회과학 등 모두 2만 1천여 권의 도서와 전자책, 비디오이프, DVD, CD 등 3,300여 점의 문화 관련 자료를 비치해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수련관은 자원봉사센터, 특성화실, 동아리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영장도 갖춰져 있다.

## 전북소식

최기우 | 전북일보 기자

### 판소리 대중화 <해설이 있는 판소리>

마당에 명석을 깔면 소리판이 됐던 판소리 공연의 원래 모습을 재현한 전주전통문화센터(관장 곽병창)의 <해설이 있는 판소리>(이하 해설 판소리)가 11월 4일 100회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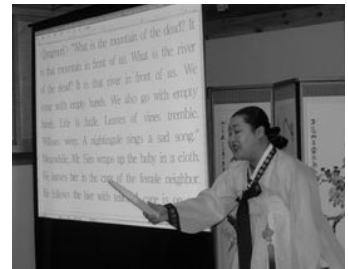
'각주가 달린 사설'을 읽기 쉽게 보여주고,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인 해설판소리는 '판소리가 대중에게 한발 다가간다'는 취지로 센터 개관과 함께 시작한 상설 프로그램.

지난해 9월 7일 젊은 소리꾼 김경호 씨의 <적벽가> 눈대목으로 시작한 이 공연은 개별 소리꾼을 무대에 세우다 29회부터 도제식으로 전수되는 판소리 전승 특성을 살려 가문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바꿨다. 지난 1월 이일주 명창을 시작으로 조소녀·최승희·이난초·김영자·최난수·민소완·박양덕·김소영·홍정택·이순단 명창과 제자들이 차례로 무대에 섰다. 100회 특별공연은 안숙선 명창과 문하생들의 <적벽가> 눈대목. 장문희·정은혜·임현빈·조성은 씨는 이 무대를 통해 각광받은 젊은 소리꾼들이다.

관객들도 남녀노소를 넘어 외국인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특히 5월 20일(62회) 영문자막이 함께 올려졌던 해설판소리의 의미는 각별하다.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가 학술진흥재단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판소리 사설 해제 및 영문번역 과제의 중간평가로 이뤄진 이날 김연 명창이 <심청가>를 불러, 에워싼 외국인 관광객들의 어깨에 신명을 불어넣었다.

전국에서 소리꾼이 가장 많은 전주는 귀명창 또한 기세가 등등한 곳.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더늌'(회장 권혁대)이 탄생된 것도 의미가 깊다.

해설판소리의 일등공신은 전국 유일의 판소리 해설자로 자리잡은 군산대 국문과 최동현 교수. 판소리 다섯 바탕의 계파와 명창들의 내력, 전승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판소리 연구자인 그는 구수한 말솜씨로 좌중을 이끌었고, 이 무대를 통해 '움직이는 판소리사전'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 영문자막이 올려진 해설판소리



▲ 안숙선 명창의 특별공연

### 북가락 잔치 『제23회 전국고수대회』

판소리 무대의 주역은 명창. 하지만 소리에 생명을 얹어내는 고수와 고수의 감칠맛 나는 북장단도 소리꾼 못지 않게 중요하다. 명창들의 소리보다 고수들의 신명난 북가락이 소리판을 사로잡는 한마당이 11월 4일과 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렸다. 한국국악협회 전북

지회(회장 김학곤)와 KBS 전주방송총국(총국장 오태수)이 공동 주최한 『제23회 전국고수대회』.

이런저런 국악대회의 심사비리로 시끄러운 올해 가을.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졌으나 이름난 명창들의 소리와 참가자들의 북장단에 귀명창들은 여지없이 신명이 넘쳐났다.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회장 김학곤)와 KBS 전주방송총국(총국장 오태수)이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명고수를 가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수 등용문. 예년과 달리 행사가 5개월 가량 늦춰진 이유는 정부의 국악행사 통폐합으로 대통령상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해프닝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는 평균 150여 명이 넘는 귀명창들이 객석을 고수(?)하는 등 활기가 넘쳤다.

올해 탄생한 최고의 고수는 홍석렬 씨(52·대명고수부), 나재순(60·명고부), 유재준(37·일반장년부), 박선화(54·일반여자부), 김기홍(33·일반청년부), 주순례(51·신인장년부), 박추우(21·신인청년부), 오태근(62·노인부), 오미란(전주효자초등·학생부) 등은 각 부문 대상 수상자다.

### 『200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다가선 문자 예술. 10월 19일 한 달간의 도도한 여정을 끝낸 『200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장 최승범)는 서예축제로서의 세계성을 확인시키는 성과

와 서예문화의 정체성과 방향 탐색이란 보다 새로운 노력을 요구했다.

역동적인 축제의 물결을 거스르는 정적인 문자예술축제에 동양의 서예가들은 주목했고, 한국 서단은 서예비엔날레의 참 의미를 인정했다.

올해 주제는 '생활 속으로'.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소극적인 입장보다 서예가와 서예가 먼저 몸을 낮추고 생활 속으로 다가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열린 올해 비엔날레를 찾았던 관객은 어림잡아 20만 명. 올해 역시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들이 적지 않았고, 전국의 서예 애호가들이 뒤를 이었지만 일반 관객들의 방문도 눈에 띄게 늘었고, 참여 또한 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에 조직위는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관객들이 전시실 안에 머무는 시간은 예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나도 서예가 체험에서는 3천명 이상이 실연에 참여했고, 가훈 써주기 행사는 주말마다 줄을 서는 관객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올해 처음 시도해 관심을 모은 서예심리치료는 학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일반 관객들의 관심을 높이는 기반을 닦았다. 서예비엔날레는 올해도 11종의 서예 관련 책자와 전시도록을 발간, 새로운 성과를 남겼다.

11월 12일 소리문화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열린 평가토론회에서 발표된(사)마당의 관람객 조사설문에서 행사 전반에 대해 좋았다는 답변이

80%로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평가는 2.2%에 그쳤다.



### 시인 고은, 고향 군산에 안기다

10월 25일과 26일 군산 은파유원지와 KBS 공개홀에서 열린 금강문화축제 『세노야 2003』. 첫 축제인 올해의 테마는 군산 출신 고은 시인(70)의 문학세계와 평화의 메시지였다.

행사가 열리는 동안 시인은 줄곧 유쾌했다. 특유의 '소주 강'의 를 보여줬던 문학강연(25일 군산KBS 공개홀)에선 "고향을 문학으로 만나자"는 말끝에 자청해 <아리랑>을 불렀고, 은파시민공원에서 열린 백일장, 전북작가회의 작가들과 군산지역 문인들의 만남(오후 3시 군산 하계), 군산지역 청소년동아리와 문인들의 시낭송·시노래 모임 '나팔꽃'의 공연이 엮여진 문화행사 『세노야 2003』(오후 6시 은파시민공원 주차장)에서도 넉넉한 웃음으로 주위 사람들의 손을 쉴새없이 잡아줬다. 26일 오후 2시 은파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린 평화대행진에서 시인은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 욕심이 없는 세상이 우리의 지향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축제는 군산YMCA 청소년 위원회(위원장 정민)와 (사)전북작가회의(회장 김용택)가 주최한 행사였지만,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 문인들과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손발을 견어붙이고 나선, 소박하지만 걸진 축제였다. 특히 라대곤·배환봉 씨를 비롯해 탁류문학회·글마당 시동인·여류문인회·청사초롱회·시나리오회·서해문학회 등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의 참여는 그 의미를 한층 깊게 했다. ‘낙엽’과 ‘금강하구에서’를 시제로 중·고등학교와 대학·일반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열린 백일장도 ‘협조공문’이나 ‘동원’이 아닌 순수 참가자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모은 프로그램은 고은 시인의 후배들이 마련한 ‘찾아가는 문학교실’이다. 개막식이 열린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군산지역의 각 학교에서 열린 문학교실에는 강형철(군산상고), 광재구(군산여고), 김용택(군산제일고), 이원규(군산동고), 도종환(군산중앙여고), 안도현(군산영광여고), 심호택(군산여상), 박남준(군산월명여중), 정도상(군산기계공고) 등 문학인들이 중·고교를 찾아가 문학강연을 펼쳤다. 각 학교에서 동시에 열린 문학강연은 처음.

30년 만에 모교를 찾은 강형철 시인(문예진흥원 사무총장)은 고교시절을 회상하며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말자”고 말했고, 노혁관

군(군산상고 3년)은 “시인이 된 선배가 자랑스럽다”며 “선배의 존재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하다”고 답했다.

이튿날 열린 고은 시인의 시비 제막식은 지역 출신 작가를 시민들에게 한층 더 가깝게 하려는 주최측의 바람이 녹아 있었다. 은파 수변공원 장 앞에 세워진 시비는 고은 시인의 시집 「부활」에 처음 실렸던 시 〈삶〉이 담겼다. 비문은 중견 서예가인 원광대 여태명 교수가 새겼다.

“고향이 마련해 준 이 행사는 기쁘지만, 너무나 뜻밖이었다”는 고은 시인은 말을 아꼈지만, 행사 내내 웃음으로 고향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보였다.

현실 참여의식과 역사의를 시를 통해 형상화한 고은 시인은 지난해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1970년대 양희은이 불러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세노야〉도 그의 시. 축제 이름이 ‘세노야 2003’으로 붙여진 배경이다.



▲ 고은 시비

『제4회 전북여성영화제』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북대 건지아

트홀과 전주 서신갤러리에서 열린 『제4회 전북여성영화제』의 단편영화 경선에서 장미경(24·우석대 영화과 4년 휴학) 씨의 〈정거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깔끔한 연출력이 돋보인 〈자전거 경주〉(감독 박은교), 장려상은 촬영 완성도에서 뛰어났다는 평을 받은 〈소녀〉(감독 임현진)가 차지했다. 장윤희 씨의 〈사피엔스 사피엔스〉와 김희 씨의 〈I LOVE YOU〉는 심사위원 특별상.

섹션 구분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한 올해 여성영화제는 지역 여성 영화인력을 발굴하는 통로인 단편영화 경선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특히 여성영화의 이론과 현장을 접목시킨 여성영화아카데미 출신 1기 수료생들의 작품이 선보여 서울여성영화제와의 차별화와 지역 내 여성 영화인들을 발굴·육성하겠다는 주최측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판소리의 모든 것 담은 「전북의 판소리」

판소리의 모든 것을 담은 판소리 연구서가 나왔다. 전라북도가 두번

째 전북학연구총서로 펴낸 「전북의 판소리」. 판소리의 미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판소리의 발생과 전승, 역사적 의의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판소리의 변화와 전망을 담아낸 판소리 이론서이자 현장실습서. 일반 대중이나 학생들이 판소리에 보다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판소리 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다.

여타의 사족을 깨끗이 배제하고 오롯이 '전북'과 '판소리'에 집중한 기획이 돋보인다. 오늘의 판소리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은 물론, 이 지역 소리꾼의 면면을 촘촘히 소개해 더 친근하다.

김기형(고려대 교수), 김대행(서울대 교수), 김동진(경희대 학술연구교수), 김석배(금오공과대 교수), 김성식(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류수열(전주대 교수), 손태도(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연구원), 유영대(고려대 교수), 유장영(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 이보형(문화재전문위원), 전성옥(연합뉴스 전북지사 기자), 정병헌(숙명여대 교수), 천이두(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최동현(군산대 교수), 최혜진(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등 참여한 필진만으로도 책의 가치는 충분히 입증된다.

책임연구를 맡은 최동현 교수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 줄 수 있는 신진학자들을 위주로 했다”며 “현 단계의 판소리 연구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았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 소개했다. (사)마당(대표 정웅기)이 기획·진행을 의뢰받아 제작했다.

『전주골방영화제 2003』

‘필름 포맷으로의 회귀’를 화두로 한 『전주골방영화제 2003』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옛 내추럴 맵(전주 동문거리)에서 열렸다. 올해도 ‘실험영화’와 ‘아트 애니메이션’이 주요 테마.

오사카 애니메이션 그룹 수프의 작품을 초대 한 ‘nOise OF aniMatiOn’과 한국 실험영화가 가진 내러티브의 이면을 찾는 ‘nOise OF naRrative’ 등. 특히 1970년대 초부터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만을 고집해 온 세키구치 가쓰히로 감독(51·동경 아사가야 미술전문학교 영상연구실)의 8mm 소형영화 15편을 모은 ‘NOISE OF 8mm 소형영화’는 아트 애니메이션의 표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8mm Film 소형영화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워크숍도 함께 진행됐다.

원주 『제8회 대둔산축제』 성료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립공원 대둔산 일원에서 열린 『제8회 대둔산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대둔산축제제전위원회(회장 조정석)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지역 특색과 전통을 살려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였다는 평가. 또 전국에서 5만여 명의 관광

객이 몰려 전국 행사로의 발돋움을 예상케 했다.

관광객의 입맛과 눈길을 사로잡은 프로그램은 산신제, 완주8경8품8미 사진전시회, 백일장, 꽃감쫄기 대회, 완주8미 이용 요리시식회 등. 특히 완주8품 직거래장터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6천여 만원의 판매고를 올려 주민소득의 증진뿐 아니라 관광 완주의 맛과 멋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평가다.



동리대상 수상자 박송희 명창 선정



▲ 박송희 명창

동리(桐里) 신재효 선생(1812~1884)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1991년 제정된 동리대상의 올해 수상자로 박송희 명창(76)이 선

정됐다. 김소희·강도근·강한영·박동진·정광수·장월중선·한갑주·조상현 등이 역대 수상자다.

2001년 <홍보가>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지정된 박명창은 박녹주·안기선·김소희·박기홍 선생을 사사했다. 현재 서울국악예술고에 출강, 고령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보이며 후학을 기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 시상식과 축하공연은 12월 5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열린다.

### 고 배형식 교수 1주기 추모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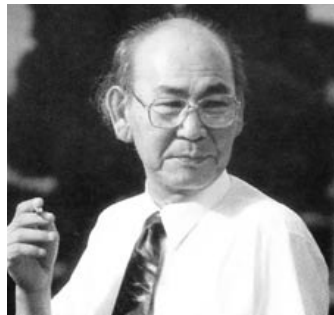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타계한 배형식 교수(원광대 정년퇴임)를 추모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원형조각회(회장 원광대 김광재 교수)가 스승의 유고작품과 함께 연 '원형조각회 전 및 고 배형식 선생님 추모 1주년 전'을 마련한 것(11월 14~20일, 전북예술회관). 유고작품 <소고무> 2점과 <발레하는 소녀> <결실> <여심> 등 5점과 73명의 제자 작품이 함께 전시됐다.

1970년대 초 원광대에 터를 잡은 배 교수는 제자들을 키우며, 볼모지나 다름없던 전북의 조각계를 일궈냈다. 30여 년 동안 배출한 학생만 해도 550여 명.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150여 명에 이른다.

배 교수의 흔적들은 도내 곳곳에 남아 있다. 원광대 교시탑, 봉황탑,

정문 입구 부조상을 비롯, 장수 <논개상>, 전주 한국은행 <모자상>, 전북예술회관 <춘허추동>, 전주 덕진공원 내 전봉준·신석정 동상 모두가 그의 작품. 배 교수는 인체 구상 조각에 주목, 철두철미한 대상의 관찰로 주로 여체작업을 통한 인체 비례와 선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왔다. 제자들은 그런 스승의 작품들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아린 배형식 개인 미술관' 설립을 소망하고 있다.



▲ 고 배형식 교수

### 『제8회 인권영화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주인권영화제(공동조직위원장 김승환·고홍석·박민자)가 올해 '폭력의 시대에 희망 찾기'로 관객들을 맞았다(11월 6일부터 8일까지 전북대 합동강당 103호).

영화제 조직위는 "발전은 위한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복지를 중심 가치로 삼는 새롭고 올바른 발전 개념으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의 현안인 새만금 사업과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그 폭력

의 연장선에서 바라봤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의 기록을 엮은 다큐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참소리 제작)을 폐막작품으로 선정한 것도 그 이유다. 이번 영화제는 <나와 부영이>(박경태 제작), <충을 듣지 않는 사람들>(김환태 제작) 등 23편의 영화를 소개했다.

### 송흥록 생애 담은 <다섯 바탕 눈대목전>



조선 후기 남원 운봉 출신 판소리 명창, 가왕 송흥록(宋興祿, 1801~1863)의 생애가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에 담겨 11월 11일과 12일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무대에 올랐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곽영효)이 마련한 창극 <다섯 바탕 눈대목전>(감독 김무길).

소리꾼 입성과 두 차례의 독공과 정, 이 시대 새로운 광대를 원하는 송흥록의 바람 등이 <수궁가>의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 <춘향가>의 적성가와 방자가 춘향 부르러 가는 대목, <홍보가>의 홍보 놀보에게 매 맞는 대목과 박타령·돈타령, <적벽가>의 적병강 불지르는 대목, <심청

가)의 심청이 임당수에 빠지는 대목과 심봉사 눈뜨는 대목 등 판소리의 눈대목이 전설의 소리꾼 일화에 맞춰 구성됐다.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과 유영애(소리지도)·심상남(음악지도)·지기학(구성·연출) 씨가 호흡을 맞췄다.

## 제주소식

박미라 | 제민일보 기자

### 우도 동굴음악회 개최

섬 속의 섬에서 감상하는 색다른 연주회 '동굴음악회'가 올해에는 민족평화축전 기간인 10월에 열렸다.

동굴소리연구회가 주관하는 동굴음악회는 평소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잦은 여름에 개최됐지만 올해는 민족평화축전 경축의 의미를 실어 10월 25일 오후 3시 동안경굴(고래 콧구멍)에서 마련됐다.

동안경굴은 소가 누운 모양의 섬, 우도에서 팔경으로 꼽히는 절경 중 하나다. 우도봉 아랫마을 검은 모래가 있는 검멀레 해안에 있는 이중동굴로 썰물이 돼야만 입구를 찾을 수 있다. 입구는 작지만 들어가면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동안경굴이라는 이름도 '동쪽 언덕의 고래가 살 만한 굴'이라는 데서 연유한다.

이날 '2003 우도 동굴음악회'에는 도민 및 관광객 300여 명이 동굴을 찾았다. 검멀레 해안에서 우도

연평초·중학교 풍물패의 흥겨운 사물놀이를 막을 열었으며 이어 제주 탐라민속예술단의 제주민요와 몸짓, 굿문열림 제차의식을 선보였다.

민속가곡의 향연으로 꾸며진 2부는 소프라노 김정희, 테너 현행복, 바리톤 김성길 씨가 〈한오백년〉〈봉숭아〉〈가고파〉〈그리운 금강산〉등 민족의 역사를 훑는 가곡 13곡을 노래했다.

### 아마추어 합창단 무대 잇따라

아마추어 합창단들의 무대가 잇따라 제주의 밤을 수놓고 있다. 최근 들어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서로의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장을 활발하게 이끌어냄으로써 제주 합창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제주부부합창단 '느영나영'은 11월 15일 제3회 정기연주회를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했다. 말 그대로 부부가 함께 가입, 노래로 부부에게까지 키우는 일석이조의 장이다. 현재 46쌍의 부부가 활동하고 있으며 제12회 탐라합창제에서 직장단체부 우수상, 제14회 탐라합창제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1월 창단한 제주코랄(회장 김명성)은 후발주자인만큼 기업 메세나 등 전략과 열의를 동반해 순수한 합창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 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

으며, 이어 다음 정기연주회 준비에 열을 올리는 등 각자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의 결속이 남다르다.

이외에도 제주에서는 제주칸투스 합창단, 제주여성합창단, 칼리오페 OB합창단 등의 아마추어 합창단이 활동하고 있다.

### 『2003 제주환경조각기획전』

폐기물을 또 다른 예술품으로 탈바꿈시키는 『2003 제주환경조각기획전』이 바람의 섬 마라도에서 열렸다.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마라도 마라도분교 일대에서 열린 환경조각기획전은 제주대 미술학과 졸업생·재학생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제주환경조각작업위원회가 마련한 행사다.

이들은 금속 캔, 유리, 플라스틱 등 쓰레기라 불리는 것들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아 쓰레기가 값어치 있는 예술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은 물론 쓰레기를 양산해 내는 현대 도시문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함께 담았다.

특히 이번 환경조각기획전은 주말을 이용해 도내 미술인과 학생, 마라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작품을 만들어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재활용 캔을 이용한 콩잎새, 수백 개의 캔을 압축해 만든 탑 등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패트병을 이용한 클린(clean) 탑이 설치되기도 했다.